로동안전
로동안전
금수강산
3
주체113(2024)
루계 제415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4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3(2024)년 3월호

제415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귀속말

신의주방직공장의 종업원들이 서로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다. 아마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쁨 함께 나누는듯싶다.

본사기자 김성철

14

28

34

40

53

56

편집: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조선녀성들의 긍지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114돐이 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녀성들이 이날을 맞이하고있다.

하지만 이날을 맞이하는 많은 나라 녀성들의 심정은 서로 다르다. 어떤 녀성들은 환희속에 맞는가 하면 또 어떤 녀성들은 실업자가 되여 래일에 대한 비관과 절망속에 맞고있다.

하다면 조국녀성들은 어떠한가.

온 나라의 축복속에, 웃음과 기쁨속에 맞이하고있다.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지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조국녀성들.

그들의 존엄과 영예가 높이 떨쳐진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돌이켜보면 지난날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몸부림치던 녀성들이였다.

이러한 비극적운명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나날 녀성들에게 자주적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안겨주시고 남자들과 꼭같이 혁명투쟁의 전렬에 내세워주시였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당당히 한몫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당창립대회의 연단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날 아무런 권리와 자유도 가지지 못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녀성들을 봉건적신분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줌으로써 녀성들로 하여금 새 조국건설의 일익을 훌륭히 맡아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녀성해방위업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기본목적으로,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실현이라는 세기에 길이 빛날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35(1946)년 8월 **김일성**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수험생들가운데 녀성비률이 낮다는것을 아시고 심중하신 어조로 이제는 우리 녀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였다고, 우리는 앞으로 녀성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해방후 그이의 령도에 의해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조국력사의 갈피에 자기들의 참다운 생의 서사시를 써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땅에 녀성중시의 빛나는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강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녀성들을 그토록 대견하게 여기시며 시대의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높이 존대하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세워주시였다. 녀성들을 위한 노래가 창작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내보내도록 하시고 자식을 위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명절을 맞는 녀성들에게 《봄향기》화장품도 안겨주시였다.

진정 그이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녀성들은 고난과 시련의 언덕도 웃으며 헤쳐넘었으며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국녀성들의 삶은 오늘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연구소와 녀성방직공, 제사공들의 합숙을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훌륭하게 꾸려진 생활의 보금자리에서 녀성들이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을 받도록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녀성들을 위한 대회를 여러 차례 마련해주시고 국가일로 바쁘신 속에서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질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였으며 온 나라가 더 밝아지도록 녀성옷전시회도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녀인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은정깊은 친필도 보내주시였으며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 출렁이는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서는 물고기선별작업을 하는 녀성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며 그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였다.

온 나라 녀성들의 가슴마다에는 주체110(2021)년 6월 20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지금과 같이 순탄치 않은 주객관적형세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가 줄기찬 전진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국가의 위력이 나날이 강화되고있는것은 당중앙이 인도하는 승리의 한길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나가는 우리 녀성들과 녀맹원들의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서도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곤난앞에서는 제일 강의하고 굳센 어머니들이 언제나와 같이 애국의 길에 한생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본보기가 되여주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영웅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뿌리가 되여주었기에 우리 조국의 빛나는 오늘이 있을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접하고 대회에 참가한 어머니들뿐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이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조선로동당을 자기 운명의 전부로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에 하나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무한한 헌신의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녀성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헤아려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녀성중시의 정치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여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국녀성들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박사로 자라나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꽃방석에 앉혀 내세워주시기에 축복받은 조국녀성들의 삶은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명세를 받아안고 격정에 넘쳐있는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

녀성공로자들

조국에서는 한직종에서 수십년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성실한 땀을 다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높이 내세우고있다. 아래에 그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평성교원대학부속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최영애

로심를 모르는 교육자

평성교원대학부속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최영애는 한생을 교육사업에 바쳐가는 교육자이다.

50여년간이나 교원생활을 해오는 그여서 이제는 나이가 70살이 넘었다.

몸은 비록 로쇠했어도 그는 교육자로서의 첫 걸음을 떼였던 그때처럼 오늘도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다.

19살에 평성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덕성소학교에서 교원생활을 시작한 그는 그때 벌써 성실하고 능력있는 교육자로 두각을 나타내였다.

사실 그가 학교에 배치되였을 때 교사는 자그마한 단층건물로 되여있었다.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따라 교사를 일신하기 위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는데 이때 그가 바친 노력은 참으로 크다고 한다.

교육자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그는 늘 교원들의 모범이였다.

그는 부단히 학습하고 또 새 교수방법들을 탐구하기 위해 늘 사색하며 교수안작성을 참신하게 하였다.

하여 그는 학교적으로 제일먼저 교육사업에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교양과 깨우쳐주는 교수방법들을 받아들이였으며 모든 계기와 공간들을 교수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깊이있게 인식하고 문화적소양과 애국심도 다같이 소유해나가도록 하였다.

분과장, 부교장을 거쳐 교장으로 사업하면서도 그의 이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보다 높이였으며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온넋을 기울여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될 때에는 소학교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학교를 본보기학교로 되게 하였으며 수십개의 과외소조를 운영하는데서도 학교가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교원의 90%가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게 되였으며 이들에 의해 육성된 학생들은 전국적인 학과경연, 알아맞추기경연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그는 늘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고 말하고있다.

돋보이는 모습

근 30년간 도로관리를 해오는 녀성이 있다. 보통강구역도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김정순이다.

그가 맡은 도로구간은 기본도로와 우회도로, 제방도로 등으로 뻗어있는데다가 화물자동차가 집중되여 다니는 길이여서 관리소적으로 도로관리가 어려운 구간이다.

하지만 그는 자진하여 이 구간을 맡아안고 손색없이 관리하고있다.

항상 도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갖가지 공구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은 그는 하루일이 끝나면 담당구간의 상태를 살펴볼수 있는 로정으로 퇴근하는것을 일과로 하고있다. 그러다가 도로는

보통강구역도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김정순

물론 표식물에 약간이나마 손상된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대책을 세우군 하였다.

언제인가 다리우의 도로가 심하게 손상된적이 있었다. 그때 작업반원들은 밤중에 어떻게 도로보수를 하겠는가고 하면서 다음날로 미루자고 하였다. 그때 그는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마음편히 집으로 갈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앞장서 현장으로 나갔다.

그의 말을 들으며 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으며 모두가 떨쳐나 도로보수를 끝내였다.

그는 이렇게 도로를 나라의 얼굴로 생각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성실한 땀을 바쳐갔다. 하기에 그가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 출퇴근길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낯을 푹 익힌 주민들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군 한다고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사람, 돋보이는 모습이라고.

길지 않은 이 말속에는 김정순녀성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기울인 헌신의 땀방울과 더불어 겉보기에는 수수하고 소박해도 깨끗한 량심을 지닌 그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비껴있다.

《보배직장장》

평양화력발전소 화학직장 직장장 박순실녀성을 두고 종업원들은 《보배직장장》으로 부르고있다.

그가 이런 존경을 받게 된것은 화학직장의 실험공으로 있을 때부터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자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일념을 안고 열심히 배운데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대학에 입학한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습과제를 수행하였고 짬이 나면 인민대학습당의 기술서적에 파묻히군 하였다. 대학과정안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였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이런 그였기에 그는 지난 시기에는 직장의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변압기를 세우고 해체하여 보수주기를 정해야 하였지만 변압기를 가동시키면서도 상태를 진단할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발전소에서 난문제로 되고있던 공업용수흐림도측정법과 화학적인 세척방법으로 려과재료문제를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몇해전 능력이 큰 발전설비들을 새로 증설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시운전을 앞두고 화학정수장운영에서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현지에 나가 그 원인을 밝혀내여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평양화력발전소 화학직장 직장장 박순실

그의 연구성과는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에도 도입되여 많은 전력을 증산하게 하였다.

하기에 발전소와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런 그를 가리켜 《보배직장장》이라 존경하며 떠받드는것이였다.

그 남다른 호칭에는 박순실녀성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쌓은 공적과 함께 그가 한생토록 품고 산 리상과 포부가 깃들어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녀성들이 즐겨 찾는 곳

- 녀성회관을 찾아서 -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잡고있는 녀성회관을 찾았다.

현지에 도착한 우리가 건물정면에 새겨져있는 녀성회관이라고 쓴 간판을 이윽토록 바라보고있는데 임길영관장이 다가왔다.

《녀성회관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지어주신것입니다.》라고 서두를 뗀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녀성회관에 찾아오시여 이곳에서 녀성들을 위한 위생강연, 노래보급, 회의도 하며 아이들을 잘 키울데 대한 강연도 하여야 한다고 회관운영방법도 가르쳐주시였다.

회관에서는 녀성들에게 여러가지 악기들과 노래들도 배워주고있다.

그 사랑에 받들려 지난 수십년간 회관에서는 녀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과 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최근에는 영화감상과 노래보급, 녀성들이 문명한 생활을 꾸려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정생활상식 및 위생강연과 자녀들을 잘 키울데 대한 강연 등이 주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회관에 들어서니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일군이 출연한 초빙강의가 한창이였다. 밀가루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가정들에서 밀가루로 맛이 좋고 영양가높은 다양한 음식들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재미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출연자와 강의내용을 열심히 청취하는 녀성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평천구역에서 왔다는 리춘희녀성을 만났다.

그는 강의를 받고보니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고, 오늘 배운대로 집식구들에게 밀가루로 여러가지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녀성회관에 오면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많은 상식들을 알게 된다고 기쁨에 겨워 말하였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진행할 공연준비를 하고있다.

이것은 그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만경대구역에서 살고있는 강영희녀성은 회관강사의 강연을 듣고 지난 시기 자식들을 보육교양하는데서 놓친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동대원구역에서 왔다는 한수림녀성은 위생강연에서 배운대로 집안팎은 물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언제나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꾸려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는 회관복도에 전시되여있는 직관판들도 돌아보았다. 직관판들에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국가적혜택과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마다에 배출된 녀성영웅들에 대한 자료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여있었다.

녀성들속에서 배출된 영웅, 박사들의 수와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녀성근로자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도표들이 소개된 직관판들은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난 녀성들의 높아진 지위를 다시금 깊이 인식하게 하였다.

직관판들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관장은 이곳을 돌아본 많은 녀성들속에서 생활을 락천적으로, 문화위생적으로 해나갈뿐 아니라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며 가정을 보다 화목하고 단란하게 꾸려나가는 소행들이 수없이 발휘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회관운영이 활발해질수록 그에 대한 녀성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시안의 곳곳에서 사는 녀성들속에서 회관운영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걸어오는 전화가 끊기지 않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알아본데 의하면 실지로 많은 녀성들이 회관에서 진행하는 노래모임과 상식강연을 비롯한 여러 모임들에 성실히 참가하는 과정에 문화정서적소양도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적지 않은 녀성들은 상당한 수준의 료리기술과 옷재단기술을 소유하게 되였다.

돌아볼수록 녀성회관이야말로 녀성들을 문명하고 고상한 풍모의 소유자로 키워주는 집이라는것을 절감할수 있었다.

우리가 녀성회관을 돌아보는 동안에도 많은 녀성들이 이곳을 찾았다. 얼굴도 나이도 서로 다른 그들이였지만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려는 마음만은 한결같았다.

그들의 밝은 모습에서 더욱 문명해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녀성회관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평

회관에서는 여러 기념일들을 맞으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된다.

구국군과 함께

(전호에서 계속)

이렇게 되여 나는 어렵지 않게 자위군부대내부에 침투할수 있었으며 몽강에 와있는 자위군총사령부의 대표와도 만날수 있게 되였다.

어느날 나는 장가의 요청을 받고 자위군지휘성원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장소에는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는 힘찬 호소로 연설의 첫마디를 떼였다.

《자위군과 반일인민유격대는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일인민유격대에 공산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적대시하는것은 항일을 방해하고 일본을 돕는 길이다. …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은 조선인독립군부대를 도와주고 련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고 그 갈등을 리용하여 량쪽을 다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치하려는 일제의 교활무쌍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

자위군은 대도회, 홍창회를 비롯한 민간무장력과 토비들을 설복하여 그들이 무고한 조중인민들을 살해하고 략탈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대소민간무장대들은 모두 항일구국력량으로 단합되여야 한다. …

일부 반일부대들중에는 일본군의 위세에 겁을 먹고 중국관내로 들어가거나 투항하는 페단들이 있다. 투항과 중도반단은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자.》

그때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것이였다.

자위군지휘관들은 그 연설에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런 연설이 있은 후 총사령부대표는 우리에게 수십자루의 무기를 넘겨주었다.

우리는 몽강에서 한 뒤달동안 자위군의 보호를 받으며 군중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하고 훈련도 하였으며 끌끌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대렬을 확대하는 사업도 하였다. 안도를 떠날 때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오가 몽강에 와서는 150명정도로 불어났다. 김성주가 큰 부대를 무어가지고 진출한다는 소문을 듣고 몽강과 그 주변의 청년들이 연방 우리를 찾아와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마치 주권을 잡은것처럼 자유롭게 활약하였다.

안도에 련락원을 보내여 알아본데 의하면 동만의 형편도 대단히 좋았다. 우리는 그 련락원이 가져온 김정룡의 편지를 보고 안도에 떨궈두고온 우리 부대의 나머지력량이 그동안 많이 불어났다는것과 왕청, 연길, 훈춘에서도 각각 100명이상 규모의 유격대들이 꾸려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나는 유격투쟁이 맹아적인 단계에서 본격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동만의 한복판(왕청)으로 우리의 활동무대를 옮기고 거기서 다른 현의 부대들과 힘을 합쳐 무장투쟁을 좀더 통이 크게 벌리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원정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가 바로 유격대의 력량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일정한 활동거점을 차지하고 투쟁하는것이 유리하고 능률적이라는것이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무송을 거치지 않고 직발 안도로 갈수 있도록 행군로정을 잡았다. 부대는 로상에서 비적들과 반일부대패잔병들을 여러번 만났다. 그들은 우리의 신식총이 탐나서 완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여러번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런 때에 참의부계통의 좋은 로인이 옛말에 나오는 무슨 도사처럼 우리앞에 불쑥 나타나 산을 꿰지르면서 부대를 량강구까지 무사히 안내해주었다. 그때 산을 타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단련이 되였고 앞으로 유격투쟁을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준비로도 되였다.

우리가 량강구를 떠나려고 할 때 우사령의 휘하에 있는 한개 련대의 주력이 량강구에 왔다. 그 련대를 맹탄장부대라고 불렀다. 맹탄장의 비서로 있던 진한장도 부대와 함께 량강구로 따라왔다.

진한장은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두팔을 벌리고 환성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여왔다.

《성주, 이게 얼마만인가!》

그는 마치 몇십년동안 헤여졌다 다시 만난듯이 나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안도에서 우사령과 담판한 후 헤여지고는 한번도 상종하지 못했던 진한장이였다.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석달만에 이루어지는 상봉이였다. 그런데 진한장은 그 석달을 삼년이나 삼십년으로 착각한 사람처럼 우정에 끓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나도 역시 오랜 리별끝에 기적적으로 맛보는 상봉과 같이 느껴져 반가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사람의 생애에서 석달이란 하나의 작은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석달사이에 퍼그나 긴 인생이 흘러가버린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에 곡절이 많고 체험이 많으면 세월도 길어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리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주네 부대가 어데 있는지 몰라서 여러곳에 수소문했더랬소. 남만에 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행방을 알수 있어야지. 그런데 량강구에서 조선공산군이 독립군과 통합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우리 부대에까지 날아오지 않았겠소.》

진한장은 맹탄장에게 나를 소개하고나서 이런 말을 꺼냈다.

《고맙소. 진동무, 나도 진동무가 보고싶었소. 그런데 량강구에는 어떻게 오게 되였소?》

《래년 봄까지 이 지방에서 활동하라는 왕덕림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소? 량강구에서 얼마동안 우리와 함께 활동하지 않겠소?》

곁에서 진한장의 말을 듣고있던 맹탄장도 같은 제의를 하였다.

나는 맹탄장부대와 함께 있으면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을 더 공고화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사람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맹탄장부대는 장학량의 정규군으로 있다가 반변해서 나온 부대이므로 무기와 장비가 현대적이였다. 그 부대에는 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었다. 총 몇자루에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다른 구국군에 비길수 없을 정도로 이 부대는 전투력이 아주 강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량강구에 머무르는 동안 맹탄장부대는 우리를 잘 호위해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위민헌신의 나날에

겨울철야영에 비낀 사랑

어느해 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겨울철야영도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해수욕을 위주로 야영생활을 조직하는것으로 해서 여름철에만 운영하였기때문이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선발하여 이 야영소에서 겨울철야영을 시키면서 그들이 마식령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에 새롭게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에서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하실 자신의 생각을 터놓으시고 그곳까지 아이들이 타고다닐 뻐스까지도 일일이 해결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몸소 달아주신 명칭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실 때였다.

철갑상어, 룡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조개류들이 욱실거리는 커다란 실내못들이 꽉 들어찬 1층내부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식당명칭을 부르기 불편해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식당의 명칭은 《옥류산물고기식당, 상점》으로 되여있었다.

인민들이 식당의 이름을 부르기 좀 불편해한다는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식당명칭을 다시 지어야 할것같다고 하시면서 봉사단위의 명칭을 하나 지어도 부르기 편안하고 봉사내용에도 맞게 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물고기못들을 둘러보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이 봉사기지를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고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는 탄성이 터져올랐다.

식당의 명칭이 부르기도 쉽고 뜻도 명백하기때문이였다.

정녕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는 부름에는 봉사시설의 명칭 하나를 놓고서도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진정이 깃들어있다.

새로 생겨난 정류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으신것은 주체103(2014)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사격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봉사활동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교통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이 운수수단을 리용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오기 힘들것같다고 하시면서 뻐스를 해결해주어 사람들이 아무때나 메아리사격관으로 오고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자면 평양시안의 여러곳에 정류소를 정해놓아야 할것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지금 일요일에도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메아리사격관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데 메아리사격관에서 일요일에도 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교통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새로 생겨난 뻐스정류소는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다.

* * *

송학장식돋을무늬꽃병

송학장식돋을무늬꽃병은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에서 주체104(2015)년 4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드린 선물이다.

청자기꽃병에는 소나무와 학이 한데 어울린 아름다운 풍경이 부각되여있다.

선물에는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시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신뢰심과 그이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있다.

* * *

조국땅우에 세기적변혁을 펼치게 될
《지방발전 20×10정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연설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정책》으로 명명하시였으며 그 실행에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정책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도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지방인민들의 숙망이자 우리 당의 숙원이고 지방공업의 발전이자 지방의 발전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면적부흥장성으로 되기에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주저없이 단행해나갈 중대결심을 내리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내밀어 10년내에 완결하는것이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불균형을 극복하는것이다.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은 변혁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점령해야 할 기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의 개변에 있어서 력사에 전례없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 정책은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지방경제발전의 웅대한 실천강령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조선로동당은 지방인민들의 생활형편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체51(1962)년 8월에 있은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볼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누구에게나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러한 관념과 법칙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수 없다는 결론에 기초하시여 최고인민회의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내밀어 10년내에 완결하는것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우시였다.

지방발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당에서 매 군에 자금, 로력, 자재를 직접 보장해주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것은 공화국 70여년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특대사변이다.

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나라들도 엄두를 내지 못한 거창한 사업을 지금과 같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선 때에 구상하고 정책화하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국가의 존엄과 권위와 직결되여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여기는 조선로동당만이 내세울수 있고 실현할수 있는 장거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 안고있는 력사적무게가 있다.

이 정책은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실질적인 개변을 가져오게 하는 변혁적무기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멀고가까운 곳은 있을수 있고 지방마다 경제적잠재력과 생활환경, 자원에서는 차이날수 있지만 공화국령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이 정책의 의의는 첫째로, 조국인민과 후대들에게 행복한 웃음만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숙원실현에서 또 하나의 력사적과제가 수행되게 된다는데 있다.

둘째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적공간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리념은 개별적분야의 발전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부문,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동시에, 속살이 지게 발전시켜 공화국령토안에 있는 인민에게 다같이 행복한 생활과 문명을 안겨주는것이다.

농촌진흥과 함께 지방공업에서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는것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힘있고 부유한 고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중대사이며 전면적국가부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속도를 가속하는 의의가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되면 국가경제전반이 비상한 장성을 이룩할수 있으며 모든 도, 시, 군들이 문명한 생활의 거점으로 전환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은 실현가능성이 확고한 가장 과학적인 정책이다.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자립적경제토대와 기술력은 비상히 증대되였으며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경험도 축적하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창조방식이다.

지방인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을 제일 반가와하며 열렬히 환호하고있으며 인민의 념원과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으시고 엄혹하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격동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대용단과 은덕에 감격해하며 신심과 희망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시대어

새시대 천리마정신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본질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혁명, 련속도약해나가는 전면적국가부흥시대의 충성과 애국,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다.

다시말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집행해나가는 충실성의 정신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는 애국의 정신이고 사대주의와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고 자체의 힘과 과학기술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특징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조선로동당과 국가, 제도를 혁명적대고조로 억척같이 받들어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혁명정신이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힘있게 선도하고 더욱 고조시켜나가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　　*　　*

광천닭공장

주체113(2024)년 1월 황해북도 황주군에 현대적인 광천닭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

조업후 광천닭공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참관자들은 전국의 가금업부문 일군들은 물론이고 각급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 기계제작부문 등 련관단위의 모든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그들은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고나서 《정말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이다. 참관을 통하여 현시기 현대화의 기준을 바로 알고 점령해야 할 기술목표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라고 말하고있다.

공장은 크게 6개의 구역인 교양 및 생활구역, 기본생산구역, 종금생산구역, 2개의 보조생산구역, 종업원살림집구역으로 형성되여있다.

참관자들이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구역은 기본생산구역과 종금생산구역이다. 기본생산구역에는 고기용닭, 알용닭 등을 키우는 호동들과 알모으기실, 위생통과실이 있으며 종금생산구역에는 알깨우기실과 위생통과실 그리고 고기용종자닭과 고기용종자후보닭, 알용종자닭, 알용종자후보닭을 키우는 호동들이 있다.

1, 2구역으로 나뉘여져있는 보조생산구역에는 각종 먹이생산장과 고기, 알보관고 등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공장에는 사육호동들의 온습도조절과 조명은 물론이고 사료공급과 배설물처리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효률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수망과 우수망에 뽐프장과 정화장들이 여러개 배치되여있다.

생산과정에 생기는 페수와 페공기는 생물려과침전지에서 침전려과 및 흡착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공장구내에 들어서도 가금공장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공장의 수의방역체계도 주목

할만하다.

방역초소와 위생통과실, 1차방역울타리와 2차방역울타리, 수의생물약품창고를 비롯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있는데 1차방역구역의 입구인 후문에서 공장에 출입하는 륜전기재와 인원들에 대한 소독을 하며 2차방역구역에서는 위생통과실에서 위생복을 갈아입고 통과하게 되여있을뿐 아니라 매일 소독용물차로 공장구내를 소독하는 등 수의방역에서 철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있다.

이외에도 종업원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세워진 새 살림집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생활상 편리한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있어 참관자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1월초 조업을 앞둔 이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성과 생산능력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광천닭공장은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백히 제시한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민헌신의 사색과 로고속에

광천닭공장에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자욱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이 공장건설은 몇해전 그이의 발기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그이께서는 명확한 건설대책도 취해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자재, 자금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을뿐 아니라 사료보장농장과 종업원들이 살게 될 살림집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러던 주체109(2020)년 7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삼복의 찌는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닭공장건설진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가금부문의 본보기로 건설되고있는 광천닭공장은 설비는 물론 건축물도 표준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닭공장건설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당에서 그토록 마음쓰는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공장으로 크게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을 고무추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이 훌륭히 일떠섰을 때에도 남먼저 찾아주시여 현시대의 발전기준, 본보기를 창조한 광천닭공장이 나라의 가금업과 지방공업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구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가금업

발전을 선도하는 본보기단위, 선진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생산장성에서 계속적인 비약을 안아오도록 격려해주시였다.

기술관리와 설비관리, 사양관리, 사료관리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것은 당에서 강조하는 중요원칙이고 요구라는데 대하여서와 전국의 가금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방도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께서는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나오는것을 흐뭇한 심정으로 이윽토록 보아주시며 올해중에 평양시에 광천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일떠세울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 * *

광천닭공장을 돌아본 참관자들은 물론이고 조국인민들 누구나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가금생산기지들뿐 아니라 지방산업공장들도 이렇듯 현대화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황정혁

광천닭공장의 제품들이 련일 평양시에 도착하여 각 상업봉사기지들에서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되고있다.

호평받는 《삼일포》제품들

《삼일포》TV에 대한 백색도검사를 진행하고있다.

《삼일포》상표를 단 수자식TV, 전기밥가마, 가정용랭온풍기를 비롯한 제품들이 조국인민들의 가정들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 제품들은 평양시 사동구역 삼골동에 위치한 삼일포전자제품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주체64(1975)년 9월에 첫 자욱을 내짚을 당시 공장의 명칭은 대동강TV수상기공장이였다.

《대동강》이라는 상표를 단 흑백색TV로 첫선을 보인 공장은 그후 천연색TV생산에 들어갔다.

더우기 주체81(1992)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선물공장인 애국천연색TV조립공장이 일떠서면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공장에서는 전자요소와 부분품들을 국산화하고 외함생산기지를 꾸리였으며 흐름선생산공정을 확립하여 TV생산능력을 년산 수십만대로 끌어올리였다.

그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TV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자식액정TV조립에 힘을 넣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자식TV들은 성능이 좋은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사업도 함께 밀고나가고있다.

최근에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기제품, 일용제품들도 생산하고있다.

《사실 공장은 TV만 생산해도 되였지만 인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업종을 더욱 확대하였다.》라고 부기사장 민광혁은 말하였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전기제품, 일용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였다.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을 비롯하여 최근에 진행된 전시회들에서 이 공장 제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공장에서는 전기밥가마와 랭온풍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기제품, 일용제품들도 생산하고있다.

건식변압기생산에서 혁신을

오늘 전력계통의 송배전망들에 건식변압기를 도입하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류경전기공장에서는 경제적의의가 큰 전력용건식변압기생산을 다그쳐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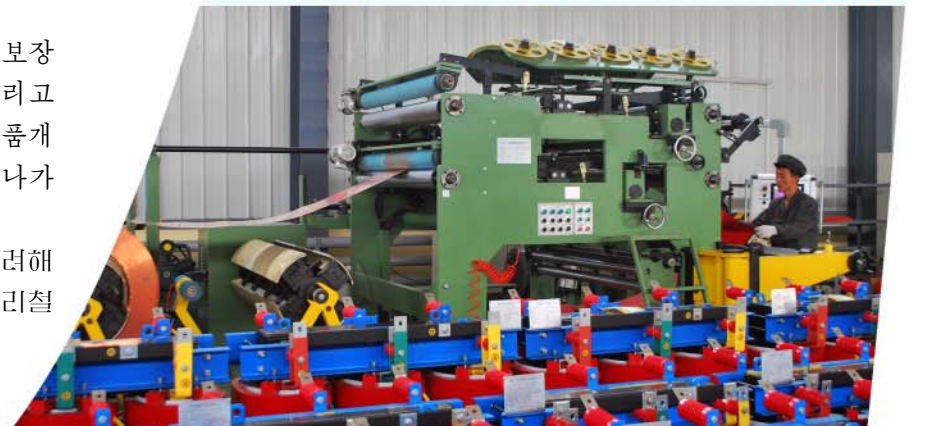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새형의 변압기는 종전의 유입변압기에 비해 전력손실이 적고 효률이 높을뿐 아니라 무부하전류가 매우 적어 선로에서의 도중손실을 줄이고있다. 이 전력용건식변압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품질인증소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공장은 국가품질시험기관으로 등록되였다.

지배인 김경남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집단은 선진적인 건식변압기생산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확립할 대담한 목표밑에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최근 공장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진공주입로에 대한 기술개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고압권선형타들도 자체로 만들었다.

건식변압기를 계렬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공장에서는 진공주입 및 건조로, 45° 철심자동절단기, 박판권선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르는 각이한 기술제원의 전기기구들에 대한 설계제작봉사도 진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품질보장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새 기술도입과 제품개발을 계속 힘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혜
사진 본사기자 리철

하나와 같은 마음을 안고

천리마시대라고 하면 조국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도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이 벌어졌던 1950년대후반기와 1960년대를 돌이켜본다. 그때 사람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들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그 벅찬 시대에 조업하여 자기 발전의 첫걸음을 뗀 신의주방직공장은 전국의 직물공장과 편직공장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실생산과 함께 여러가지 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은 그후 여러 단계에 걸쳐 설비갱신과 생산능력확장으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왔다.

오늘도 공장에는 천리마시대의 정신과 기백이 넘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공장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더 많은 천을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공장일군들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높여주는 한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설비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데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하여 백수십대의 공기직기들의 기술적성능이 훨씬 높아졌으며 수십건의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천의 질은 물론 생산성이 높아지고 로력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종전에 수입에 의존했던 원료, 자재의 국산화도 실현하였다.

공장에서 높아지는 집단적혁신의 열의는 다추, 다기대운동으로 더욱 승화되고있다.

어느 직장이나 할것없이 천리마시대에 배출되였던 전세대 방직공영웅들처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따라잡으며 집단적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그런 속에서 많은 기대공들이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들로 자라났으며 그 대렬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그 정신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려는것이 이 공장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압력용기개발자들

국가과학원 건축재료연구소 위성건재개발소에서 선진적인 압력용기생산공정을 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 압력용기는 물정화계통과 각종 시약, 액체 및 기체공급계통의 압력탕크 등 화학, 건설, 방직공업과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특히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는 력학적특성과 내부식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그 수요가 높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어느한 중요대상건설장에 새 기술도입을 위해 나갔던 국가과학원 건축재료연구소 위성건재개발소 분소장 박사 전창혁은 압력용기들이 부족하여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것은 건축재료를 연구하는 그로 하여금 커다란 가책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소로 돌아온 그는 곧 연구집단을 뭇고 압력용기생산공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연구는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일정하게 경험을 쌓은 적지 않은 과학연구단위들에서도 여러 축방향의 동시조종이 가능한 CNC기계설비의 설계와 제작, 조종프로그람개발 등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생산공정과 관련한 연구에 선뜻 뛰여들지 못하고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파악도 없는 30대의 연구사들에게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첨단분야라고 일컫는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생산공정에 대한 연구는 한마디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문헌자료가 부족한 조건이지만 조국이 바라는것이라면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안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연구에 달라붙었다.

공정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기 위해 연구조모두가 사색을 합치였고 휴식의 여가시간에도 효률적인 섬유감기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출하되는 압력용기들의 기술적지표들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하고있다. 주체112(2023)년 9월 촬영

이 나날 국내의 실정에 부합되는 전반적생산공정에 대한 설계가 빠른 시일안에 완성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만에는 압력용기생산공정구축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섬유감기기계제작과 조종프로그람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광민, 문철민, 남대철, 전혜영연구사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형타제작방법을 완성한데 이어 제품운반장치, 건조로를 비롯한 각종 지구장비들도 제작하여 내놓았다.

새로운 안목과 착상으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연구사들은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제작에서 절실한 속층(심형)과 섬유감기층형성에서 리용되는 적층기술도 해결하였고 압력용기의 겉보기, 작업압력, 당김세기도 선진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사들은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의 제작에 쓰이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체화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진전을 이룩하였다.

새로 제작한 CNC섬유감기성형기계에서 첫 시제품들을 생산해냈을 때에도 연구사들은 기술적지표가 선진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하여 끝끝내 풀칼장치를 비롯한 여러 설비를 새롭게 제작도입하여 기술적특성이 개선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들이 기울인 4년간의 고심어린 노력은 마침내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생산공정구축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연구사들이 구축한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유리섬유강화수지물려과기, 영양액탕크, 100기압바다물정제기용고압용기, 60kV피뢰기용절연관을 비롯한 압력용기들은 그 제작원가가 적고 기술적특성이 좋아 도입단위로부터 호평을 받고있으며 그 수요도 날로 높아지고있다.

함경남도 련포온실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는 주체110(2021)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유리섬유강화수지압력용기생산공정을 구축한 국가과학원 건축재료연구소 위성건재개발소의 연구사들은 오늘도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과 지혜를 바쳐가고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리섬유강화수지물려과기들은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였다.

주체110(2021)년 련포온실농장에 도입

주체110(2021)년 류경원에 도입

주체112(2023)년 민들레학습장공장에 보내는 려과기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시작에 불과하다》

경사연관식보이라의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있는 김현일(가운데)과 연구사들

지원첨단기술제품교류사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지적제품개발단위이다.

교류사에는 열공학연구실, 나노재료연구실, 프로그람개발실을 비롯한 여러 연구실들이 있다.

지난 시기 지적제품들을 많이 내놓은 교류사에서는 최근시기에도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열공학연구실에서 개발한 경사연관식보이라는 지난해 여러 나라에서 특허증서를 받았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이들이 개발한 경사연관식보이라와 차열판구조물을 설치한 보이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조사보고에서 이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방안이며 발명수준이 있고 공업도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경사연관식보이라와 차열판구조물을 설치한 보이라의 개발자는 열공학연구실 실장 김현일이였다.

그는 물관식보이라보다 전열면에 붙은 불순물제거가 쉬운 반면에 열교환능력이 낮은 연관식보이라의 열효률을 높일수 없겠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연관을 기존방식대로 수직으로가 아니라 경사로 배치할 착상을 하였다.

김현일실장은 선행문헌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면서 연구사들과 함께 각이한 형식의 물가열기모형들을 만들어 수십번이나 전열효률대비실험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 물가열기의 동체체적당 전열면의 배치밀도를 높이면서도 연관들을 경사로 배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하였다.

김현일실장은 경사연관식물가열기를 완성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후에는 전열효률이 높으면서도 사용수명을 늘일수 있는 차열판구조물을 설치한 보이라를 내놓았다.

차열판구조물을 설치한 경사연관식보이라는 전열면적이 같은 종전의 보이라에 비해 열교환량이 증가하므로 연료가 절약되며 열생산량이 같은 경우로 제작될 때 자재소비량은 훨씬 적었다.

주체111(2022)년 차열판구조물을 설치한 경사식연관보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으며 수도의 여러 기관, 기업소에 도입되여 은을 내고있다.

김현일실장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조국에 절실한것, 인민이 바라는것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여 새것을 창조해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김현일이 연구제작한 보이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였다.

김현일이 개발한 경사식연관보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실용신형특허증서를 받았다.

두뇌발달교육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있는 김형직사범대학 교육과학부 두뇌발달교육연구실의 교육자들

확대 도입되고있는 주심산교육

두뇌발달교육은 두뇌가 가지고있는 정신적기능과 잠재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필요한 기교와 수법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원만히 숙련시켜 인간을 비상한 지적능력의 소유자로 키워주는 교육이다.

김형직사범대학 교육과학부 두뇌발달교육연구실의 교육자들이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곳 연구집단속에는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젊고 쟁쟁한 연구사들도 있고 그들을 키운 스승도 있다.

최근시기 그들은 보통교육부문은 물론 고등교육부문에서 교종별에 맞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두뇌발달교육방법을 연구하였다.

그 교육방법을 보면 1단계가 주심산이고 2단계가 기억술이며 3단계가 사유도, 4단계가 속독으로 되여있다.

그들이 두뇌발달을 위한 매 교육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주심산교육방법은 4살잡이 유치원어린이들로부터 소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다방면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의지와 인내력도 요구되였다.

주심산교육은 주산법에 기초하여 어린이가 머리속으로 주산판과 주산알의 오르내림을 상상하면서 진행하는 암산방법이다.

이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상상력과 함께 영상기억능력, 주의집중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능이 강화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접수보존하고 재생하는 높은 정보처리능력을 소유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연구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주심산교육을 주면서 그들의 심리적과정을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이 실지 아이들의 지능계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확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평양시는 물론 지방의 유치원교양원, 소학교교원들에게 주심산교육방법을 보급하여 여러 유치원과 소학교들에서 도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곳 교육집단이 창조한 주심산교육의 교육심리학적효과성을 론증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립해가는 과정의 련속이였다. 또한 2단계인 기억술과 3, 4단계인 사유도, 속독교육방법들과 그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교육방법들의 효과성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주심산교육만 놓고보아도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받지 못한 어린이에 비해 암산능력에서 비할바없이 높은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이 교육을 받은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을 료해한데 의하면 경상유치원의 7살 난 리정임어린이는 더하기, 덜기로 된 세자리수 30개의 계산문제를 1초동안에 정확히 풀었으며 평천구역 봉남소학교의 10살 난 김홍연학생도 더하기, 덜기로 된 세자리소수 50개에 대한 계산을 1.5초동안에 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사실 소수문제는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답이 완전히 틀리고 필산으로도 풀기 힘든것으로 하여 난도가 높은 문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평천구역 미래소학교의 교원인 리은옥은 《학생들에게 주심산교육을 주니 놀라운 점이 많았다. 우선 학생들의 수학계산에서 속도와 정확성이 매우 높아지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고 상상력과 함께 기억력,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게 되니 다른 과목에 대한 리해도 잘하였으며 학생들은 자연히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창조적인것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려는 이곳 김형직사범대학 교육집단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꼬마조각가

지난해 8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있는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에서는 제15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이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에서 선발되여온 수백명의 유치원어린이들이 참가한 경연에서는 특출한 재능을 보여준 어린이들에게 해당한 상장들이 수여되였다.

그들중에는 평안남도의 평성시 평성유치원의 리권흥어린이도 있었다. 권흥이는 경연심사측이 제시한 《나비와 수닭》이라는 동화이야기의 내용을 색진흙조각으로 묘사할데 대한 문제를 한시간동안에 완벽하면서도 재치있게 형상함으로써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경연의 심사성원이였던 교육성 부국장 김영심은 경연무대에서 펼쳐보인 권흥이의 남다른 재능에 대하여 《자그마하고 깜찍한 두손으로 색진흙을 리용하여 작품에 반영된 동식물들을 짧은 시간에 연방 빚어내는 권흥이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그의 색진흙조각들은 세부묘사가 잘되였으며 동식물들의 비례와 특징 등이 매우 정확하였다.》라고 평하였다.

권흥이가 빚은 색진흙조각들은 생김새와 감정표현, 운동감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섬세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유정금교양원의 말에 의하면 권흥이의 뛰여난 조각술의 밑바탕에는 천성적인 재능이 깔려있다고 한다. 4살때에 권흥이는 누가 배워주지 않았어도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토끼와 사자, 말, 승냥이를 비롯한 동물들은 물론 놀이감인형들의 모습도 신통하게 그려 부모들과 주위사람들을 놀래웠다.

권흥이의 남다른 소질은 그후 유치원교육을 통하여 더욱 계발되였다.

그 어떤 사물이든지 한번 보고도 실물처럼 그리는 권흥이의 재능을 더욱 계발시키기 위해 유치원에서는 그의 관찰력과 상상력, 기억력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탐구하여 교수에 도입하는 한편 립체공간표상능력을 높여주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고 손놀림이 유연한 그에게 색진흙조각에 대한 교육도 따라세웠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서는 권흥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미술가인 가정환경의 특성에 맞게 그들과 부단히 련계를 가지면서 유치원교육과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부시키였다.

그 나날 주제에 따르는 대상의 성격을 독특하게 형상해내는 권흥이의 재간은 세련되게 되였다.

색진흙으로 신통하면서도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 권흥이의 조각솜씨는 도와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경연들과 제15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무대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권흥은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던 수닭이 꾀많은 나비의 수에 걸려 벼랑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잘 째인 구도속에 생동하게 형상하여 심사자들과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로부터 2달후에 진행된 제4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에도 권흥이는 색진흙조각 《누가 먼저 오르나》를 출품하여 메달과 입상증서를 수여받았다.

올해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권흥이는 전문가들로부터 전도가 촉망되는 조각신동으로 사랑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리　철

리권흥이 빚은 색진흙조각들의 일부

아버지와 함께 제4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에서 입상한 기쁨을 나누고 있는 리권흥

선진적인 수술방법을 완성한 비결

보건성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간 및 장종양연구실 실장 박철룡은 암치료에서 높은 실력을 지니고있다. 지난 4년동안에 그는 종양치료에 적합한 선진적인 수술방법들을 완성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을 되찾아주었다.

4년전 실장으로 배치되였을 때 그는 림상실천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기본목표로 삼았다. 당시 실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우엽에 대한 종양이나 장종양, 취장암수술같은것을 하기 힘든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군하였다.

종양치료분야의 의료일군으로서 심한 가책을 받은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연구사업에 나섰다. 먼저 시작한것이 간우엽의 종양치료에 대한 연구였다. 실에는 간우엽에 생긴 종양에 대한 수술은 첨단수술기재가 없이는 하지 못하는것으로 생각하는 성원들이 많았다.

한것은 간좌엽에 비해 면적이 넓은 우엽에는 동맥과 정맥의 크고작은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여있어 암조직을 떼내기 위한 수술은 수천가지의 섬세한 수술조작중 단 한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는 간종양에 대한 문헌들과 동화상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기초우에서 김만유병원과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한 간종양수술에서 성과를 거둔 병원들에 찾아가 협동수술을 하면서 실기능력을 높이였다. 그리고 콤퓨터모의실험도 수백, 수천번이나 하였다.

이 과정에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수술기법들을 련마하였으며 치료단계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도도 찾아내였다. 마침내 그는 조선사람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수술방법들을 완성하고 림상실천에 성과적으로 도입하였다. 그가 완성한 수술방법들은 간우엽웃쪽에 있는 종양에 대한 수술과 중요혈관들을 먼저 처리하고 간절제를 진행하는 계통적간절제술이다.

그는 세련된 수기와 림상경험을 활용하여 치료불가능이라던 함경북도에서 사는 신암식료공장 로동자 김광일과 간암으로 생을 포기했던 함경남도 수동광산로동자 신철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생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외에도 그는 장문압기를 리용하여 직장암을 수술하는 방법, 수술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취두십이지장절제술, 합리적인 장절제술 등 림상적의의가 있는 수술방법들을 완성하였다.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있는 박철룡(왼쪽으로부터 두번째)

실장이 솔선 앞장에서 선진적인 수술방법들을 련이어 내놓자 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실의 성원들이 너도나도 새로운 수술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을 위해 그는 협동수술을 조직하여 그들의 수기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주에 한번씩 진행하는 기술학습시간에 모든 성원들이 종양들에 대한 문헌을 발취하여 문제점을 잡아쥐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리론능력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회를 통하여 실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경험을 발표하게 하여 수술방법과 수술적응증, 수술후합병증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우도록 하고있다.

박철룡은 선진적인 수술방법을 내놓은데 그치지 않고 협동수술도 조직하여 연구실의 모든 성원들이 여러 종류의 종양수술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있다.

그때부터 실에서는 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립장을 가지고 취장암과 직장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종양수술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상식

정신적 및 육체적건강의 8가지 기준

정신적 및 육체적건강의 8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을 빨리 먹을수 있어야 한다.

식욕이 왕성하면 한끼밥을 빨리 먹을수 있을뿐 아니라 음식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내장의 기능이 정상임을 말해준다.

② 대소변을 빨리 볼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위장기능이 정상임을 말해준다.

③ 빨리 잠들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중추신경계통의 흥분과 억제기능이 조화롭다는것을 말해준다.

④ 언어표현이 정확하고 민첩해야 한다.

빨리 말할수 있는것은 두뇌가 명석하고 심장과 페의 기능이 정상임을 말해준다.

⑤ 빨리 걸을수 있어야 한다.

행동이 자유롭고 민첩함은 정력이 왕성하다는것을 말해준다.

⑥ 개성적특징이 좋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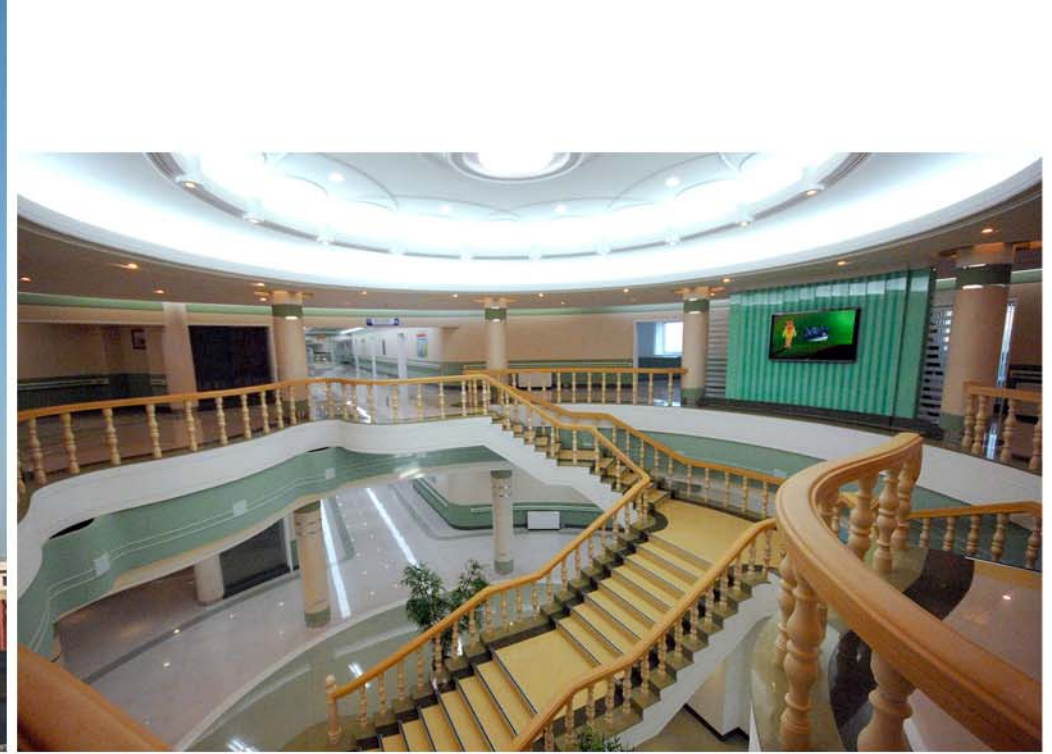
성격이 온화하고 의지가 강하며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야 한다.

⑦ 적응능력이 좋아야 한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하며 자연억제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적응될수 있어야 한다.

⑧ 적극적인 사회교제능력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접촉하고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너그럽고 온화하며 리해타산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잘 대해줄수 있어야 한다.

* * *

중앙홀

문 수 기능회복원

문수기능회복원은 부지면적은 2만 2 000㎡이고 연건축면적이 1만 7 370㎡이며 100여종에 달하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170여종에 근 800점이나 되는 의료기공구들을 갖추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문수기능회복원을 찾았다.

문수기능회복원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기능회복치료기지로 일떠선 때로부터 어느덧 11년이 지나갔다.

문수물놀이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있는 문수기능회복원은 멀리에서 보기에도 현대미가 나면서도 아담한 건축미를 나타내고있었다.

정문에 들어서니 부원장 김현주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곳에서는 조선의학협회 회복의학부문위원회가 활동하고있다고 하면서 부지면적은 2만 2 000㎡이고 연건축면적이 1만 7 370㎡인 회복원에는 100여종에 달하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170여종에 근 800점이나 되는 의료기공구들이 갖추어져있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외래환자들은 매일 전용뻐스를 타고 그곳으로 래왕한다는것이였다.

이때 그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 한대의 뻐스가 정문안에 들어서더니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치료실들로 가고있었다.

우리는 부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작업치료실에 들리였다.

그곳에서는 두명의 중년녀성이 각각 신경기능회복치료과 치료전문가들에게서 한창 치료를 받고있었다. 뇌혈전후유증으로 한쪽팔에 마비가 온 그 두 녀성은 치료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고뿌쌓기동작을 하고있었다.

중구역 오탄동 6인민반의 리춘옥환자는 두달전에 뇌혈전이 온 후 한쪽팔을 전혀 쓰지 못하

기능치료회복실

신체운동치료실에서

작업치료실에서

대중체육홀

였는데 한주일정도 치료를 하였더니 병증세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한다.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뇌졸중, 소아마비, 뇌성마비, 척추질병, 사지손상,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의 기능회복치료를 해당 전문과뿐만 아니라 물치료과, 물리치료과, 고려치료과, 의료기구과와 협동치료를 진행하고있었다.

작업치료를 마친 후 리춘옥도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치료와 물치료, 파라핀치료, 수법치료를 차례로 받게 된다는 부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업치료실을 나선 우리는 여러가지 크고작은 운동기구들과 의료소공기구들을 갖춘 신체운동치료실이며 일상생활동작치료실, 아동치료실, 운동치료실, 장애자치료실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신경기능회복치료실에서

운동치료실에서

치료실들마다에서 우리는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가고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물치료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물치료과 의사 리은미는 《물치료로는 뜰힘, 정수압, 온도, 열전도성을 비롯한 물의 물리적성질을 리용하여 관절염, 경추증, 척추변형,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할수 있습니다. 사실 물속에서의 치료방법은 다른 치료방법들보다 좀 복잡하기때문에 우리는 매일 담당환자와 함께 두시간이상씩 물속에 들어가 치료를 방조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례사롭게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정성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성을 느낄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수영복을 입고 부력판을 쥔 한 처녀가 치료전문가의 손을 잡고 맑은 물이 찰랑이는 수조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올해 22살인 그 처녀는 14살에 강한 타박으로 무릎관절을 상한 후부터 지팡이를 짚고다니게 되였었다. 그러나 회복원에서 6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후부터 처녀는 지팡이와 결별하게 되였다.

언제인가 이곳을 참관한 해외동포들은 이런 훌륭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나라는 오직 조국밖에 없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활기에 넘쳐 치료에 열중하고있는 환자들과 치료전문가들의 모습을 사진기렌즈에 담은 우리는 특색있게 설계된 원형계단을 밟으며 2층으로 향하였다.

그곳에는 심장기능회복치료과, 물리치료과와 함께 수법치료실, 침치료실을 갖춘 고려치료과, 의료기구과, 대중체육실, 입원실들이 있었다.

돌아보면 볼수록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세심하고 뜨거운것인가를 우리는 더더욱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윽고 하루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뻐스에 오르고있었다.

우리는 이렇듯 훌륭한 인민의 기능회복치료기지에서 건강을 되찾고있는 기쁨으로 밝은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수기능회복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철

민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소장과 본사기자의 대담-

기자: 오늘 지구의 기후변화,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물문제는 날을 따라 심각해지고있습니다. 그로부터 민물자원을 보호하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류의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조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민물자원의 급속한 감소로 물위기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얼마전 유엔이 세계적인 민물자원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 40년동안 물사용량이 해마다 약 1%씩 늘어난 반면에 현재 35억명이 최소 1개월동안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물을 무진장한 자원으로 여기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물자원을 보호하고 확보하며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여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조영철: 최근년간 우리 연구소에서는 강령호담수화구조물 건설방안과 합장강관리방안, 수력발전소들의 큰물조절지원프로그람개발과 대동강의 물량확보대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학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강령호의 담수화를 위한 짠물빼기시설물의 구조와 배수능력, 시설물의 구조력학적 및 수리학적안전성을 해명하였으며 제방의 견고성과 비내림량에 따르는 강령호담수화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담수화구조물건설방안을 제안하고 10여건의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였습니다.

기자: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합장강의 물보장방안을 세우는데서도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우리는 합장강에 대한 현장조사자료에 기초하여 합장강물량과 생태환경보장을 위한 환수물량을 확정하고 보장대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탕을 비롯한 퇴적물의 한계흐름속도를 결정하여 합장강의 물이 항상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계획방안서도 세웠습니다.

강령호의 담수화를 위한 구조물의 일부

뿐만아니라 강원도의 내평3호발전소언제를 비롯하여 수력발전소언제들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설계에 도입하였으며 희천1호, 2호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 큰물조절지원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하여 최대큰물량을 70%까지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기자: 지난해 장마철때 대동강의 수위가 비교적 안정적이였는데 여기에서도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조영철: 물론입니다. 우리는

계승발전되는 민족음악

참가자
진국송: 국립민족예술단 단장
김인철: 피바다가극단 안무실장, 공훈예술가
전인옥: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성악학부 민족성악강좌 강좌장
연옥: 본사기자

연옥 : 안녕하십니까.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인민은 로동과 생활과정에 자기의 민족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민족음악을 널리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을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진국송: 민족음악은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여온 전통적인 음악입니다. 민족음악은 매개 나라의 음악예술에서 기본을 이루고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음악에 민족생활의 자취가 어려있으며 민족고유의 독특한 향취가 스며있기때문입니다.

김인철: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가슴마다에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노래를 한곡 불러도 민족의 넋이 어린 민요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민족의 향취가 짙은 민족무용을 즐겨 추고있습니다.

전인옥: 옳은 말입니다.

흥겨운 민요가 울리면 어깨를 들썩이며 아름다운 춤가락들을 펼치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족예술에서 기본은 민요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있는 민요가 많습니다. 민요는 선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따라부르고싶고 한곡조 부르고나면 민족의 긍지와 자랑이 저도모르게 솟게 하는것이 민요입니다. 우리 민요들은 선률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류창하며 민족적정서가 풍만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진국송: 민족악기들의 음색은 또 얼마나 독특합니까. 아마 그 어떤 양악기나 전자악기로도 민족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를 대신할수 없을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을 보존하면서 그 형태와 모양, 재질에서 고칠것은 고치고 새롭게 도입할것은 도입하여 음색도 더 맑고 음량도 더 크게 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야금, 해금, 단소, 장새납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악기들이 현대적으로 발전되고있습니다.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 사업이 진행되고 민족악기의 우위가 확고히 보장되였으며 민족악기군에 양악기군을 배합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배합관현악도 탄생하였습니다.

만수대예술단과 국립민족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통하여 민족악기의 우수성과 독특한 매력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민족음악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연옥: 우리 나라 민족무용도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그 형상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김인철: 예. 우리 나라 민족무용의 률동은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부드러우면서도 기백이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무용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리해하기 쉬우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함께 춤을 추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로동생활과정에 수많은 우수한 민속무용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민속무용 《연백농악무》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연백농악무》는 우리 나라 주요곡창지대인 연백벌의 특성으로부터 그 어느 지역의 농악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이런데로부터 조선의 농악무를 대표하는 민속무용입니다. 《연백농악무》는 모내기와 김매기를 형상한 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형상한 춤 등 매 춤들이 영농절기별에 따르는 농민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하였는데 절정을 이루는것은 상모춤입니다.

전인옥: 《우리 장단이 좋아》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 나라 민요의 장단만큼 다양하고 특색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장단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선률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류창하며 민족적정서가 풍부한 민요를 다 발굴하여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재형상하는것은 우리의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대학에서 민족음악교육을 강화하고 민요와 민족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요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재창조, 재형상할데 대한 문제, 민요를 발전시킨 새로운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시기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우리 강좌에서는 조선장단을 살리고 서도민요창법에 의한 민족성악교육을 발전시켜 독특한 개성을 갖춘 민요가수들을 키워내는데 계속 힘을 넣고있습니다.

연옥: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들어있는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귀중한 문화적재보를 보존하고 우수한 전통을 살리며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 * *

GIS기술을 도입하여 강바닥의 돌무지량부터 확정한 후 대동강의 큰물통과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과학적인 돌무지준설량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시공단위들에서 강바닥의 돌무지들을 말끔히 제거한 결과 지난해 대동강의 물관리가 원만히 진행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외에도 지하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총적인 물자원량은 적지 않지만 바다에로의 류실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지하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리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전자도서 《조선의 지하수자원》, 《수자지하수자원분포도》와 지하저수지설계지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적인 물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에서 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 * *

함경북도에 건설된 어랑천3호발전소언제

민족음악가후비들

주체112(2023)년 11월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민족음악발표회중에서

지난해 11월 평양대극장에서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민족음악발표회가 진행되였다.

학생들이 출연한 발표회무대에는 조국인민들속에서 애창되여온 노래들을 민족적색채가 짙으면서도 현대적미감이 살아나게 형상한 민족목관4중주 《새봄의 노래》, 민족기악합주 《풀무타령》, 민족타악대합주 《매봉산의 노래》등이 올라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관중들은 민족음악예술의 양양한 래일을 보았다,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음악에 비낀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받아안았다고 말하였다.

훌륭한 학생의 뒤에는 훌륭한 선생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이 여러가지 민족악기들로 특색있는 공연무대를 펼쳐놓을수 있은데는 민족기악학부 교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슴배여있다.

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민족기악의 우수성과 고유한 특성을 깊이 체득시키면서 개별교수와 함께 안삼블교수을 교육실천에 받아들이였다.

지난 시기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개인기량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왔다. 하지만 개별적인 학생들의 연주기량이 아무리 높아도 집체성을 띠는 공연에서 그것을 일치시키지 못한다면 응당한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학부에서는 독주위주의 민족음악형상으로부터 합주위주의 민족음악형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안삼블교육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안삼블교재집필과 민족기악에서 안삼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학부장 동주영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섰다. 그는 기악연주에서 악기들의 전통적인 수법들을 요긴한 대목에서 효과있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률형상에서 현대감이 살아나게 하였다.

교원들속에서도 새 교수방법들이 창조되고 그것을 교수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관악강좌교원 박광혁은 다양한 양상의 작품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편곡한 민족기악교재곡집을 완성하고 학생들이 그 작품들을 형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형상수법들을 깊이 터득할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 교원들속에서는 민족적선률과 장단을 비롯한 민족음악의 표현수단들과 연주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교수에 반영하기 위한 효률적인 교육방법들이 탐구되였다.

하여 기량훈련과 안삼블교육에서 실용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학생들은 민족음악의 고유한 특성을 원리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연주에 구현할수 있게 되였다.

이 나날 학부의 많은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교육과학성과등록증을 받았으며 여러명의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대렬에 들어섰다.

지난해 민족음악발표회에서 50여명의 학생들이 째인 안삼블로 민족악기들을 훌륭하게 다루어 관중들을 감동시킨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오늘도 민족기악학부의 교원들은 학생들속에 민족음악에 정통한 박식가, 민족음악을 새로운 시대적높이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창조의 능수들로 키우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영은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건강식품 조선엿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날로 꽃펴나 인민들의 식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식생활풍습에는 엿과 같은 전통적인 당과류도 전해내려오고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선조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리길금이 낟알에 들어있는 전분을 당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것을 발견하였으며 당분이 많이 포함된 엿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습니다.

하기에 엿을 조선엿이라고 칭하고있는것입니다.

엿이란 알곡 또는 감자농마를 길금이나 산으로 당화시켜 졸여서 굳힌 당을 말합니다.

아마 엿을 맛보신분들은 사탕처럼 그리 달지는 않지만 들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나고 근기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을것입니다.

우리가 엿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것은 얼마전 황금노을건강식품생산소에서 생산한 오리고기엿을 맛본 후였습니다.

삶은 오리고기에 엿을 두고 다시 졸여 만든 이 엿뿐만 아니라 고기, 고려약재 등을 넣어 만든 10여가지의 엿제품은 몸보신에 참으로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엿제품을 해외동포들에게도 맛보이고싶은 마음을 안고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우선 엿은 재료와 졸임정도, 색갈,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종다양합니다.

엿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찹쌀엿, 수수엿, 강냉이엿, 감자엿, 고구마엿으로 나눌수 있으며 졸임정도에 따라서는 물엿과 강엿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색과 모양에 따라 흰엿, 검은엿, 판엿, 가락엿, 알엿으로 나누며 섞는 감에 따라 콩엿, 밤엿, 호두엿, 잣엿 등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엿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구수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있으며 우수한 영양학적특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품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조선엿은 길금당함량이 높고 단백질, 기름질, 광물질과 비타민 등이 많이 포함되여있습니다.

길금당은 인슐린의 작용이 없이도 세포안으로 쉽게 들어갈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 길금당함량이 풍부한 엿은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치료음식으로 되고있습니다.

엿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장내미생물구성상태를 좋게 할수 있으며 여러 질병들을 미리 방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엿은 에네르기소비가 많은 체육선수들이나 육체적부담이 많은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에네르기원천으로, 원기를 돋구어주는 식품으로 되고있습니다.

《동국리상국집》에 행석맥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행석은 행인엿(살구씨엿)을, 맥락은 보리죽을 의미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려시기 사람들이 엿을 즐겨 먹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록에는 엿이 이, 이당, 강엿, 조청, 백당, 흑당 등 여러가지로 씌여져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당은 엿을 한자로 표기한것이고 강엿, 조청은 엿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달리 지어진 이름입니다. 즉 강엿은 엿물을 오래 졸여서 굳힌것이고 조청은 엿물을 완전히 졸이지 않은 액체상태의 엿입니다. 조청은 주로 음식가공과 약을 만드는데 썼으며 강엿은 간식으로 많이 리용하였습니다.

흰엿(백당), 검은엿(흑당)은 엿색갈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서 흰엿은 검은엿을 잡아당겨 늘구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을 여러번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국인민들은 자기 지방의 고유한 음식감들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엿을 만들어먹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 지방마다 자기 고장의 자랑으로 여기는 엿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전의 평안도와 강원도지방에서는 강냉이엿, 황해도지방에서는 무우엿, 함경도지방에서는 감자엿이 특산음식으로 되여있었습니다.

엿은 먹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 다른 나라들에까지 널리 퍼져 명물로 알려져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엿을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많이 썼으며 음식을 조리할 때 조미료로도 널리 리용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계피나무껍질, 마른 생강, 무우오가리, 매화열매 등을 넣어 가래삭임약이나 보약을 만드는 고려약재의 하나로도 썼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조선엿들

강냉이엿

다시마엿

마가목엿

고구마엿

조선엿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공업적방법으로 만든 뱀장어뼈엿

지난 시기 조국인민들은 설명절이나 정월대보름명절이면 엿을 즐겨 만들어먹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도 조국에서는 낟알과 감자로 만든 엿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엿을 명절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즐겨 먹고있으며 엿의 주원료인 당을 리용하여 각종 영양식품과 간식, 고려약도 만들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최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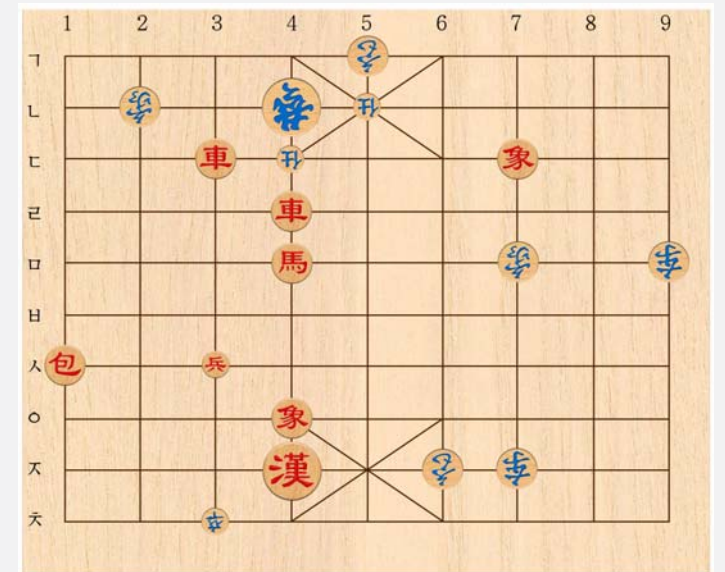
장기수풀이 (15)

장기격언

치앞에서는 열자식이 부동이다

차의 위력을 뜻하는바 한개의 차가 열개의 졸이라도 공격을 못하게 저지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장기수풀이 (14)에 대한 답

ㄷ7차ㄷ6, ㄴ6궁ㄷ6, ㅅ5병ㅅ6, ㅈ1차ㅈ6, ㅊ6포ㅇ6, ㅈ6차ㅇ6, ㅇ5상ㅁ3, ㄷ6궁ㄴ6, ㅇ1포ㅇ6, ㄴ5사ㄷ6, ㅅ6병ㅅ5, ㄷ6사ㄴ5, ㅁ3상ㄷ6, ㄴ6궁ㄷ6, ㅅ5병ㅅ6,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구천각

고향소식

인민의 기쁨 넘치는 동흥산기슭

동흥산은 지난날 그 생김새가 마치 룡이 도사린듯하다고 하여 반룡산이라고 불리우다가 조선동부의 번영하는 도시 함흥에 있는 산이란 뜻에서 동흥산으로 고쳐 불리우게 되였다.

동흥산에는 력사유적 구천각과 선화당이 있다.

얼마전 우리는 중국 단동시에서 살고있는 리설희동포의 고향인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우리와 만난 구역의 일군인 박성철은 《우리 구역에 대해 알려면 먼저 동흥산부터 돌아보아야 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우리는 동흥산으로 오르게 되였다.

동흥산의 력사유적을 돌아보고있다.

선화당

함흥동물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그 생김새가 마치 룡이 도사린듯하여 반룡산이라 부르던 이름을 동쪽에서 부흥한다는 뜻에서 고쳐부르게 되였다는 동흥산의 경치는 그야말로 아름다웠다.

동흥산마루에서는 성천강이 흐르는 도시전경과 함주벌이 눈에 안겨오며 주변에는 선화당, 제월루, 구천각, 함흥성을 비롯한 유적들과 400여년 자란 동흥산은행나무가 명승지의 이채로움을 더해주었다.

력사유적과 천연기념물뿐이 아니였다. 곳곳에 꾸려진 휴식터와 놀이터들, 지난해에 개건된 함흥동물원에서는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그러한 모습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군은 최근년간 도적으로 건설이 보다 폭넓게 진행되여 구역에 많은 건축물들이 개건되거나 일떠서 이전 시기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며 아마 변하지 않은것이 있다면 동흥산의 유적들일것이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동흥산기슭에 틀지게 들어앉은 함경남도과학기술도서관이였다. 한번에 수백명을 수용할수 있는 도서관에는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국가망을 통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있었다. 나이와 직업은 서로 달라도 열심히 배워 자기 단위발전에서 한몫하려는 그들의 지향이 도서관의 곳곳에 비껴흐르고있었다.

동흥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신흥관은 함경남도의 특산인 감자농마국수로 유명하다.

동흥산은하피복공장에서는 오리털가공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질좋은 겨울옷들을 생산하고있다.

우리는 도서관의 지적제품전시장에서 동흥산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문영선을 만나게 되였다. 그는 최근년간 공장에서 오리털가공공정을 새로 일떠세웠는데 한번 보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호기심이 동한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의 오리털가공작업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공공정의 선별기에서는 여러 차례의 가공을 거친 오리털들이 가볍게 흩날리며 차곡차곡 내려쌓이고있었다. 마치 함박눈이 내리는것같다는 우리의 말에 문영선지배인은 국제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오리털이 생산됨으로써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질좋은 겨울옷들을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재봉기의 동음이 고르롭게 울리는 생산현장에서는 오리털솜옷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이 가공되고있었다.

이 공장뿐이 아니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 단위의 발전을 이룩해가는 긍지와 자부심은 동흥산식료공장과 동흥산화학일용품공장, 동흥산편직공장, 동흥산직물공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의 종업원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주체112(2023)년 함경남도문화회관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이어 함경남도의 특산인 함흥감자농마국수로 유명한 신흥관과 개건된 함경남도문화회관, 함흥력사박물관 등을 돌아본 우리는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새별동으로 향하였다.

구역의 일군인 박성철은 만영동에 이어 새별동에도 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서 련일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인다고 하였다.

우리는 새별동 1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종희로인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로인은 원래 살던 집도 좋았는데 이렇게 덩실하게 큰 새집을 받았다며 몇해사이에 구역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하였다.

어제날 고향땅의 애틋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있을 리설희동포가 만약 오늘의 동흥산구역을 찾는다면…

우리는 동흥산구역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며 구역의 일군이 한 말을 되새겨보았다.

《몇년후에는 우리 구역이 또 달라질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 새별동 10인민반에 살고있는 김종희로인의 가정에서

상 식

살림집례절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살림집을 짓고 사는데서도 사람들사이에 고상한 례의범절을 지켜왔다.

우리 선조들은 이웃에서 살림집을 짓거나 집들이를 할 때 온 마을이 떨쳐나와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어느한 가정이 살림집을 지으면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으며 그렇게 하는것을 례절로 여기였다.

살림집이 완공되여 집들이를 할 때에도 마을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와 이사짐을 날라주면서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었다.

우리 선조들은 방안출입과 리용에서도 례절을 지켰는데 방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밖에 벗어놓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며 밖으로 나올 때에도 역시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방을 리용할 때에는 온돌방의 뜨뜻한 아래목은 웃어른들에게 권하고 젊은 사람들은 웃목이나 웃방에 자리를 잡는것을 례절로 여기였다.

이웃집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밖에서 주인을 찾고 응답이 있을 때에만 집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나누었다.

방에 들어가서는 주인이 권하는데 따라 자리에 앉아서 용무를 보았다. 이것은 이웃간에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두터이 하는것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긴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례절이였다.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것을 례절로 여기는 우리 선조들은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일어서서 맞이하였으며 방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손님이 짐을 들고왔으면 짐을 받아주고 겨울에는 솜옷같은 것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 걸어주는 등 찾아온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것을 응당한 례절로 여기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살림집생활에서도 고상한 례의범절을 창조하고 오랜 력사적기간 계승해왔다.

* * *

박사 부교수 배재선

치과교정분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부름속에는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려있다.

그 믿음을 안고 분발해야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수 있다.

몇해전 류경치과병원의 교정치과에서 과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배재선선생에게 심한 아래턱전돌증이 있는 한 청년이 찾아왔다.

환자의 병상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증례였다.

아래턱이 얼마나 앞으로 나왔는지 입을 다물어도 이발들이 드러나있었고 우아래이발들도 맞닿지 않아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치 않은것은 물론 웃거나 식사를 할 때에도 여간만 피로워하지 않았다.

30여년을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악교정치료를 적지 않게 하여온 그로서도 치료방도가 묘연하기만 하였다.

당시 선행문헌에도 이런 환자를 치료한데 대하여 서술된것이 없었다.

그는 《치료에서 성공한다는것은 악교정치료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나로서도 처음에 아연하게만 생각되였다. 그러나 험한 얼굴로 하여 머리도 들지 못하는 청년을 볼수록 내 자식처럼 생각되였고 그럴수록 가슴은 더욱 아팠다. 하여 서슴없이 환자치료에 나서게 되였다.》라고 회상하였다.

곧 긴장한 치료가 시작되였다.

그는 의료집단과 힘을 합쳐 환자의 얼굴과 입안사진촬영, 본뜨기, 얼굴CT촬영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과 최신연구자료들과의 대비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으로는 문헌자료들과 의학도서들을 연구하면서 합리적인 치료방법들도 모색하였다. 그때 그가 문헌자료들과 의학도서들을 얼마나 보고 또 보았는지 보풀이 일지 않은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끝에 매 단계에 따르는 치료계획을 확정한 배재선과장은 악교정수술을 위한 모의수술을 거듭하면서 수술수기를 더욱 세련시켰다. 결과 환자의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수술후에도 그는 환자의 부정과 기능장애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선진치료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였다. 하여 1년 2개월이라는 날과 달이 흘러 마침내 환자의 부정교합상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였다.

그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의 인사를 하는 환자와 나라의 의학발전에 또 하나의 공헌을 하였다고 축하해주는 병원의료일군들의 믿음어린 모습을 보며 그는 다소나마 의사의 본분을 했다는 마음으로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밤 배재선과장은 조국의 품이 아니였더라면 자신이 오늘과 같이 악교정치료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수 있는 의학자로 될수 있었으랴 하는 생각으로 잠들수가 없었다.

해방전 그의 부모들은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지지리 못살아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타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개만 못하다고 그들의 운명은 달리될수 없었다. 그러던 부모들이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된것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때부터였다.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살림집도 마련해주고 생활상불편이 있을세라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그것이 고마워 그의 부모들은 다음해 태여난 자식의 이름을 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재선이라 지었고 그가 대학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였을 때에는 의술로써 나라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또 하였다고 한다.

부모들의 그 당부는 배재선과장의 삶의 신조로 자리잡게 되였으며 그것은 수십년세월이 지났어도 변할줄 몰랐다.

지난 10년간 배재선과장은 20여건의 선진치료방법들을 연구도입하여 혀계대부착이상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을 비롯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8만 5 000여명의 치과질병환자들을 완치시키였다. 그리고 《치과교정용미니임플란트의 림상》, 《악교정치료학》 등 30여건의 각종 교과서와 참고서를 집필하여 나라의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발전된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고있던 치과교정용미세임플란트고정원을 비롯한 10건의 치과교정재료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9차례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세계의학과학기술발전에도 공헌하였다.

세계치과교정협회에서는 이런 그의 공적을 《걸어다니는 사전》이라는 표현으로 평가하였다.

박사, 부교수이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인 그는 오늘도 다른 의사들이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치과교정치료의 미개척분야에 대한 탐구의 길을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환자들의 건강회복과 나라의 의학발전을 위한 배재선의 헌신의 길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재중동포들 2월의 명절을 경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2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심양, 단동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중남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16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책임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일군들, 심양시지부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으며 일찌기 령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신 명장중의 명장,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그는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결연히 나서시여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온넋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였으며 공장과 농촌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만복의 씨앗들을 뿌리시고 가꾸어오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언제나 해외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온갖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이시였다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일어나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이어 경축공연과 연회가 있었다.

15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수록한 영화문헌을 학습하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목단강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장백현지부, 할빈지구협회 할빈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도 영화문헌학습, 좌담회, 결의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단청

별지화와 서예

조선의 단청무늬장식에서 또 하나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별지화와 서예이다.

건물의 화려함과 품격을 높여주는 별지화와 서예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조선의 단청무늬장식에 널리 리용되였다.

* * *

성불사 응진전 대들보의 별지화

안불사 극락보전 빗반자의 별지화

하비로암 보련대벽체의 범그림

부벽루의 시주련

을밀대의 현판

보현사 상원암의 현판

연탄 심원사 보광전의 현판

통군정의 현판

고려태조 왕건의 어머니 몽부인

고려의 건국자인 왕건에 대해서는 이미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면 고려태조 왕건의 어머니는 어떤 녀성이였는가?

일명 몽부인으로 불리운 왕건의 어머니는 개성의 보기 드문 미인이였다.

개성으로 말하면 유명한 해상무역기지여서 그 번창하기가 이를데 없었다.

9세기중엽에 이르러 개성지방에는 해상무역활동에서 폭리를 얻어 대부호로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중에는 룡건이라는 사나이도 있었다. 룡건의 집안은 재력의 힘으로 개성과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어느날 밤 룡건은 이상한 꿈을 꾸고 깨여났다. 아름다운 한 녀인이 자기에게로 다가와 웃으며 절을 하더니 《이제부터 제가 랑군님을 섬겨올리겠소이다.》 하고는 사라지는것이였다.

며칠후 룡건은 영안성으로 가는 길에 신통히도 꿈에서 보았던 처녀와 모색이 같은 녀인과 어기게 되였다.

우연한 일치에 놀란 룡건은 그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처녀는 용모도 아름다웠고 리치에도 밝아서 룡건의 마음에 꼭 들었다.

처녀 역시 룡건의 사나이다운 기풍과 열정적인 성격에 내심 마음이 끌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말았다.

사람들은 룡건의 꿈이 인연이 되여 맞아들인 녀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를 몽(꿈 몽)부인이라고 즐겨 불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당시는 풍수설이 농후한 때인지라 몽부인은 남편과 의논하여 집을 남향으로 다시 크게 지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얼마후인 877년 1월 14일 몽부인은 정말로 아들을 낳았다.

두눈에 차넘치는 령롱한 빛과 널직한 이마 등 태여난 아들의 모색은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다.

젊은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왕건이라고 지었다.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과 높은 요구성에 의해 왕건은 나날이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당시(9세기말엽) 도처에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왕건은 조상대대로 닦아놓은 해상무역을 밑천으로 새 나라를 세울 꿈을 무르익히였다.

바로 이러한 때 북부지방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던 폭동군지휘자 궁예가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해 개성지방의 세력가인 룡건에게 자기 수중에 들어올것을 요구하여왔다.

룡건은 이에 쾌히 응하였고 아들을 궁예의 부하로 들여보내였다.

궁예는 자기 뜻대로 일이 성사되여가는데 만족하여 룡건을 림진강중류지역의 금성태수로 봉하였다.

남편을 따라 금성지방으로 옮겨앉은 몽부인은 궁예의 술책에 대해 여러가지로 권고하는 등 각방으로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보살펴주었다.

부인의 권고대로 룡건은 궁예로 하여금 아들 왕건(19살)을 개성지방의 성우두머리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그것은 곧 왕건이 개성과 그 주변에서 세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던 897년에 룡건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남편의 뜻밖의 사망은 몽부인에게 있어서 헤아릴수 없는 큰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그후 몽부인도 아들의 위업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다가 끝내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날을 보지 못한채 사망했다.

왕건은 왕이 된 후 어머니 몽부인을 위숙왕후로 봉하였다.

이처럼 몽부인은 고려태조 왕건을 낳아 키운것으로 하여 민족사의 한페지에 기록되게 되였다.

* * *

혼천전도

unesco
Memory of the World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ertifies the inscription of

Hon Chon Jon Do (Complete illustration of the Astronomical Chart)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National Library of DPR Korea)
(Institution)

Pyongyang (Town)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24 May 2023
(Date)

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UNESCO

《혼천전도》는 18세기 우리 나라의 천문학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천문도이다.

《혼천전도》는 《온 하늘을 그린 전체 그림》이라는 의미로서 당시 밤하늘의 별들을 한장의 종이에 투영하여 옮겨놓았고 이와 함께 천문학적현상들과 그에 대한 해설 및 천문상수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단군조선시기부터 발전하여온 고유한 천문학의 발전상이 주되는 내용을 이루면서 18세기전반기까지의 서방천문학의 발전상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여있다.

이것은 당시의 천문학발전면모를 알수 있게 하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천문유산인 동시에 동방천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국보적인 천문도이다.

《혼천전도》는 현재 인민대학습당에 소중히 보관되여있으며 주체112(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

* * *

유모아

농부의 꾀

옛날 한 농부가 죄아닌 죄로 억울하게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되였다. 어느 봄날 그는 안해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제 당장 감자를 심어야겠는데 저 혼자서 땅을 뚜질수 없어요.》라고 씌여있었다.

농부는 곧 회답편지를 썼다.

《감자밭을 뚜지지 않아도 되오. 내가 거기다가 금을 넣은 단지를 파묻어두었으니 그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수 있을거요.》

편지는 옥지기를 통해 안해에게 전달되였다.

며칠후 농부가 다시 안해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이틀전에 사람들이 열명씩이나 와서 우리 밭을 고맙게도 몽땅 뚜져놓았어요. 그러니 저 혼자서 감자를 심을수 있어요.》

* * *

지조와 량심을 귀중히 여긴 최북

최북(1720년-1770년)은 어느 한 시골에서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최북은 자를 성기, 호를 칠칠이라고 불렀다.

최북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면서 짬짬이 그림공부를 하였다. 남달리 영특하였던 최북은 부자집 아이들처럼 미술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였으나 자기식의 화법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여 그의 그림재간은 나날이 늘어만 갔으며 여기저기에 소문이 나게 되였다.

그럴수록 그에게 그림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림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조건이였지만 최북은 눅은 값으로 그림을 그려주군 하였다.

최북은 권세앞에서 굽어들줄 모르는 화가였다.

최북의 이러한 성품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최북의 집으로 한 아전이 찾아왔다. 리유인즉 어떤 권세있는 량반이 급히 찾는다는 것이였다.

아전을 따라가니 량반은 그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한상 잘 차렸다.

영문을 알수 없었던 최북은 량반에게 무슨 일로 불렀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량반은 최북에게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였다.

순간 최북은 량반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자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기때문에 그릴수 없다고 잘라버렸다.

최북이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자 량반은 소리치면서 최북을 위협하였다.

이에 분격한 그는 벌떡 일어서면서 《네가 나를 이길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한쪽눈을 칼로 찔러버렸다.

순간 량반은 물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까매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최북이 권세있는자들앞에서 아부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화가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금강산전도》 50.7×60.7㎝ 종이·먹

《매와 토끼》 29.5×41.5㎝ 종이·먹

최북은 비록 옷을 허름하게 입고 밥을 배불리 못먹어도 사랑하는 조국의 산천풍경을 화폭에 담는것을 생활의 락으로 간주하였다.

최북이 천하명승 금강산을 찾아갔을 때였다. 구룡폭포의 장쾌함에 매혹되여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는 그만 발을 헛디디여 천길아래로 떨어질번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다행히 구원된 그는 명산의 명폭포에 안겨 죽는다면 후회될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만큼 그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사랑하였다.

그의 그림들에는 울창한 수림, 장쾌한 폭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묘사한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금강산》, 《여름풍경》, 《한여름》, 《매와 토끼》 등을 들수 있다.

그리 크지 않은 화폭에 금강산이 한눈에 안겨오도록 형상한 작품 《금강산전도》는 통이 큰 화가의 성품과 회화적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지리도해적형식을 띠고있으나 세련된 필치로 금강산의 변화무쌍한 산봉우리들을 재치있게 형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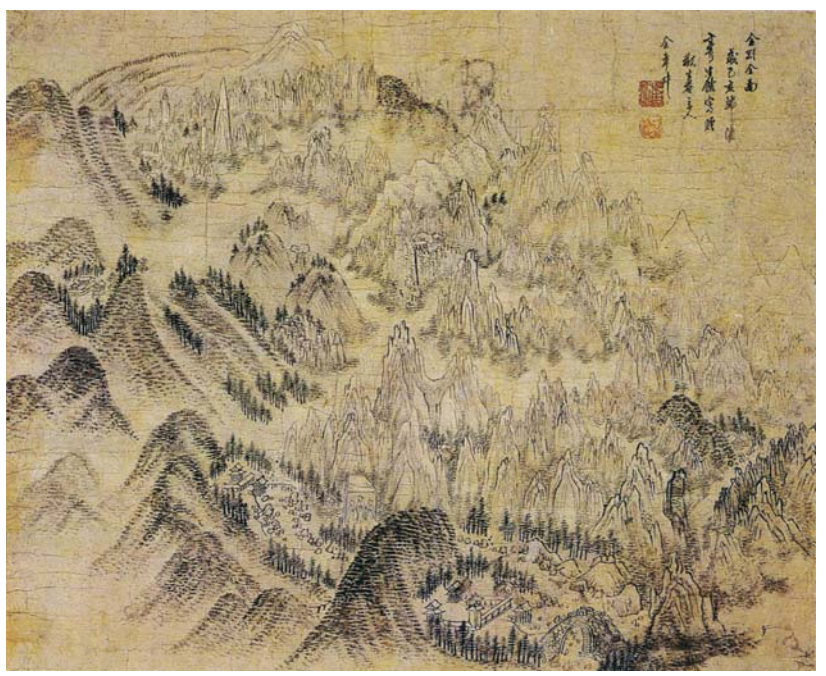
그가 금강산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데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다.

어느해인가 어떤 사람이 비단천을 가지고와서 최북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풍경화보다 자기의 초상이나 안해의 초상과 같은 인물화를 그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북은 아무 말도 없이 붓을 들고 금강산전경을 그려주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구도가 째이고 실물을 보는것만 같은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굳센 의지, 깨끗한 량심을 지닌 최북의 그림들은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경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여름》 140×80㎝ 종이·먹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광 제 사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리에는 광제사가 있다. 절에는 지금 대웅전과 보광루, 무량수전이 있다.

《대동사기》에 의하면 상송산 큰골에 있던 하천사와 룡흥사를 1467년에 이곳에 옮겨지은 후 절을 광제사라고 불렀다.

1735년에 절의 대웅전량옆에 팔상전, 명부전을 세우고 창고, 향전, 주방 등을 건설하였다는 력사기록이 있다. 자료만 놓고보아도 당시 절의 규모에 대해 잘 알수 있다.

그 이후 1871년에 화재로 절이 전부 불탔기때문에 1872년에 대웅전(《룩도법왕보전》)을 짓고 다음해에 승방들을 세웠다.

현존건물은 이때의것이 기본으로 되여있다.

대웅전은 정면3간(9m), 측면2간(6m)의 겹처마합각집이다.

대웅전

건물은 전반적으로 포식과 익공식이 결합된 조선봉건왕조말기의 양상을 반영하고있다.

정면과 량측면의 간추벽들에는 중들의 생활세태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다. 무량수전은 정면 6간(15m), 측면3간(7.45m)의 겹처마합각지붕을 한 큰 규모의 건물이지만 두공은 없다.

보광루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본래의 상태가 많이 변형되였다.

당시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광제사 대웅전은 오늘 민족문화유산으로 소중히 보존관리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강무

광제사중건사적기

보광루

무량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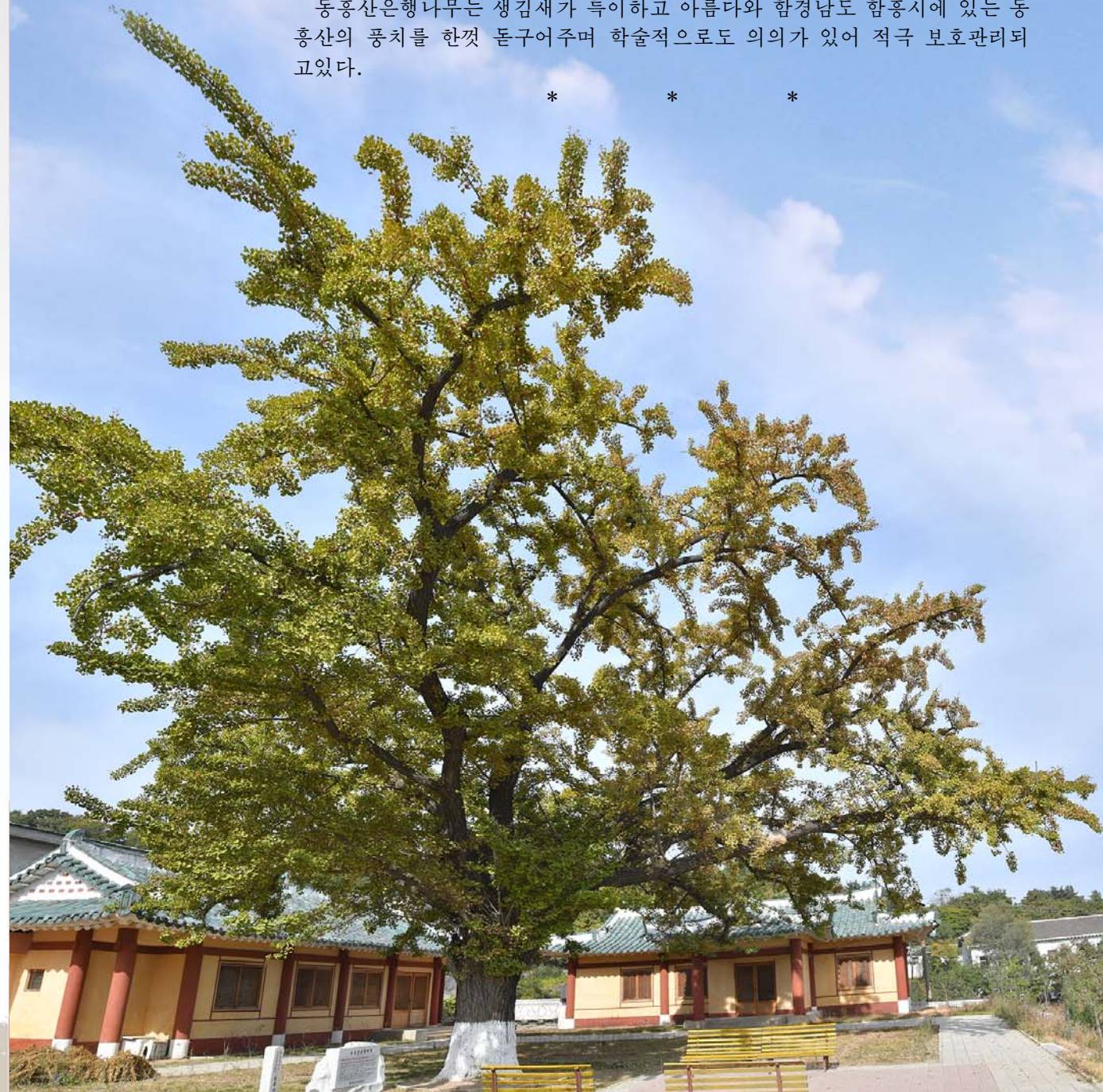
동흥산은행나무

400년이상 자란 동흥산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 속하는 잎지는 넓은잎키나무이다.

이 나무는 키에 비해 땅걸면과 수평되게 사방으로 가지를 많이 치며 자라 나무갓이 넓은것이 특징이다.

나무갓의 너비는 동서로 30여m, 남북으로 근 30m이며 나무의 높이는 근 20m에 달한다.

동흥산은행나무는 생김새가 특이하고 아름다와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동흥산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며 학술적으로도 의의가 있어 적극 보호관리되고있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3월의 화성거리/임정국

ㄱ-24088013175